

오늘의 TV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TV channels (KBS1, KBS2, MBC, KBC-SBS, EBS) and program titles. Rows are numbered 6 to 12.

Table with columns for TV channels (KBS1, KBS2, MBC, KBC-SBS, EBS) and program titles. Rows are numbered 6 to 12.

Table with columns for TV channels (KBS1, KBS2, MBC, KBC-SBS, EBS) and program titles. Rows are numbered 6 to 12.

‘고요의 바다’ 이무생
탐사대 보안팀장 연기
“주연 욕심 없어...
맡은 역할에 최선”

“제 색깔을 더 냈더라면 임무 수행에 도움이 안 됐겠죠.”

넷플릭스 시리즈 ‘고요의 바다’에서 탐사대 보안팀장 공수혁 역으로 출연한 이무생 (42)은 지난 5일 화상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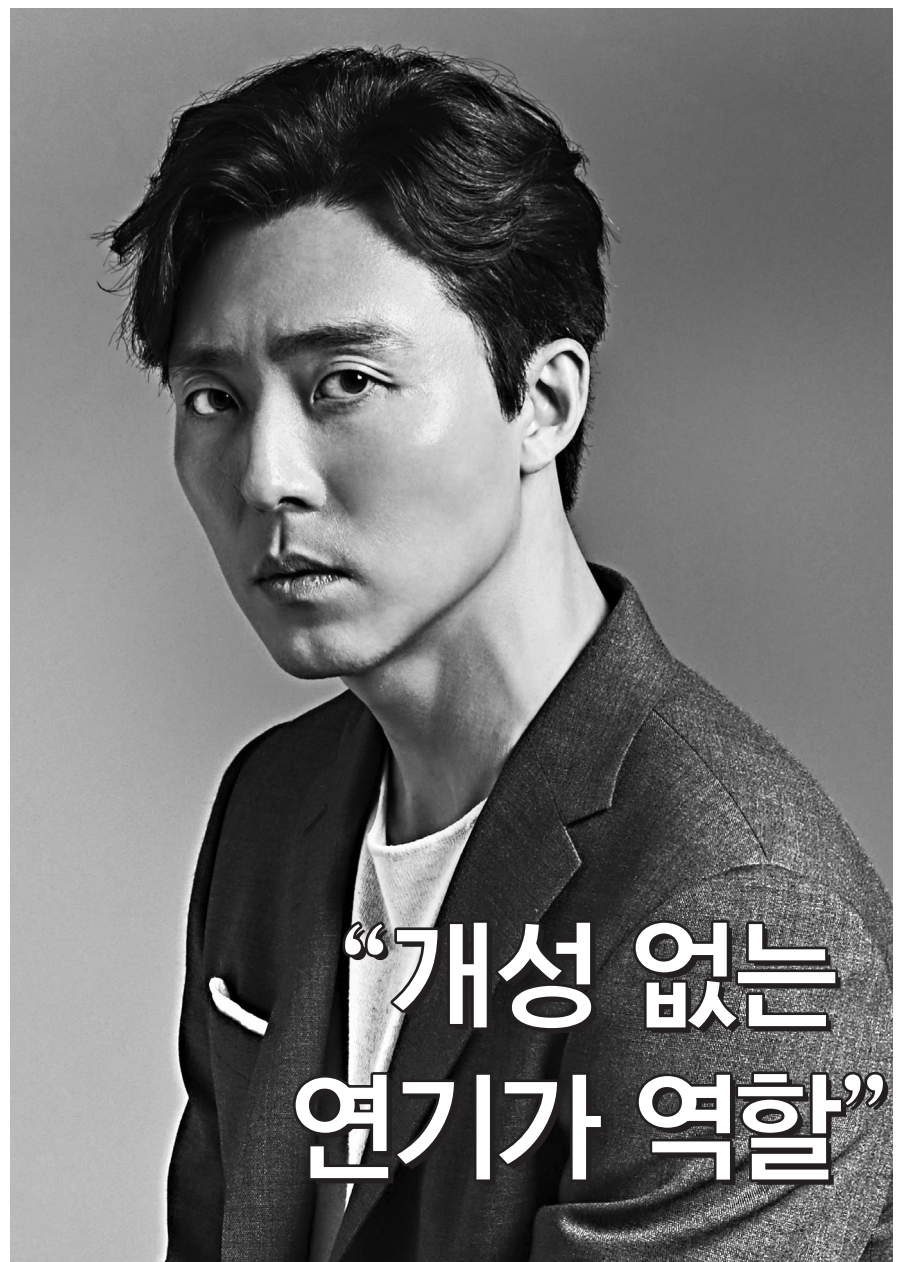
그가 연기한 공수혁은 든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캐릭터로, 탐사대장 한운재(공유분)를 보조하는 역할이다. 맡은 역할이 탐사대 지에서 인류 생존의 단서가 되는 중요 샘플을 수거해오는 임무 수행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이무생은 “공수혁은 에프엠(FM·원칙)에 철저한 군인으로, 어떤 순간에도 임무에 충실하지는 생각을 하는 인물”이라며 “대장 한운재가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캐릭터를 소개했다.

어떤 순간에도 냉철함을 유지하는 캐릭터라는 설정 때문에 말수도 적고 감정 표현도 적은 편이다 보니, 캐릭터의 개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평가도 받았다.

“무색무취”의 캐릭터라는 평가에 대해 이무생은 “드라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제 뒤에 (공수혁 역할에) 맞는 행동과 선택이었던 것 같다”며 “역할의 색(개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 역시 하나의 색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무생은 무엇보다 한국의 첫 우주 SF 시리즈에 출연하게 돼 뿌듯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관객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게 다가왔다고 전했다.



“개성 없는 연기가 역할”

2006년 영화 ‘방과후 옥상’으로 데뷔한 이무생은 올해로 16년 차 배우다. 방송계에서는 단역부터 조연까지 크고 작은 역할을 맡아온 그는 “개성이 있는 연기가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에 대한 욕심도 있을 법하지만,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 주연에 대한 욕심은 크게 없다고 했다. 이무생은 “제가 하고 싶은 작품, 캐릭터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며 “그

러다 보면 좋은 작품에, 좋은 역할이 들어와서 더 사랑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연기하는 저 자신이 좋아서 일을 시작했다”고 털어놓은 그는 “16년이 됐는데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며 “그 순간순간을 나뉘어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버텨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렇게 똑같이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지은-홍종현 ‘개미가 타고 있어요’ 주연

배우 한지은과 홍종현이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개미가 타고 있어요’ 주연으로 낙점됐다.

‘개미가 타고 있어요’는 국내 드라마 최초로 주식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사람들이 미스터리한 주식모임에서 만나 주식을 통해 인생을 깨달아가는 휴먼 코미디를 그린다. 한지은은 주식 투자로 실패를 경험한

예비 신부 ‘주식 신생아’ 유미서를, 홍종현은 고급 외제 차를 타는 서른셋의 편견적 아르바이트생 최선수를 연기한다.

정문성은 필요한 돈이 모일 때까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강산 역을, 김선영은 맛집으로 소문난 족발집 사장 정나 역을, 장광은 퇴직 후 주식에 뛰어들어 영어교사 김진배 역을 맡았다. 율하 반기 공개 예정. /티빙 제공



오늘의 운세 김도환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월 7일 (음력 12월 5일)

- 48년생 귀인이 찾아오는 날이다. 60년생 정당한 나의 몫을 지켜라. 72년생 이상의 후덕을 흔들려서는 안 된다. 84년생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 법이다.
- 49년생 신용을 얻으니 앞날이 밝아온다. 61년생 하루가 시원하게 풀리는 멋진 날이다. 73년생 웃으면 복이 온다. 85년생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히 처신하라.
- 50년생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날이다. 62년생 나를 믿어주는 후원자가 있다. 74년생 식복이 터졌으니 웃음이 가득하다. 86년생 부딪치지 말고 참아라.
- 51년생 빌려 주었던 돈을 돌려받는 날이다. 63년생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75년생 문서 운이 좋아지는 날이다. 87년생 멋진 이성을 소개 받는다.
- 52년생 순풍에 돛 단 듯하다. 64년생 직장에서 크게 인정을 받는 날이다. 76년생 급전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 88년생 모임에 나가면 감투를 얻어 쓴다.
- 41년생 머리도 모르게 비상금은 꼭꼭 숨겨라. 53년생 하는 일마다 잘되니 신바람난다. 65년생 역시 부모님은 내편이다. 77년생 숨겨둔 능력을 발휘한다.

- 42년생 재물이 나가는 날이니 마음이 속상하다. 54년생 흥한 날이니 조심하라. 66년생 배우자와 좋은 시간을 보낸다. 78년생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 43년생 한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 누구에게도 당당하다. 55년생 정상이 눈앞에 있다. 67년생 외출을 삼가고 매사에 조심하라. 79년생 공돈이 생기는 날이다.
- 44년생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그림다. 56년생 정당한 내 자리를 찾는 날이다. 68년생 직장에서 구설수가 있다. 80년생 주고받는 인정이 있으니 살맛난다.
- 45년생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 57년생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69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81년생 밤 길 조심하고 늦은 약속은 삼가라.
- 46년생 나이를 원망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하라. 58년생 말 한마디가 큰 작용을 한다. 70년생 꿈과 현실을 구분해야 한다. 82년생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 47년생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마라. 59년생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에 힘써라. 71년생 옛것을 지키는 것이 상책이다. 83년생 분수 밖의 일은 생각하지도 마라.